

창업 도전자 지원 위한 AI 솔루션 370개 확보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해 선발된 5000명 아이디어 구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도전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솔루션 370개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솔루션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약 5천 명의 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참여해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창업활동 자금과 멘토링, AI 솔루션, 후속 사업화 자금 등이 제공된다.

특히 AI 솔루션 지원은 창업 초기 단

계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 도전자들은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략 기획, 마케팅, 경영 관리 등 '경영·관리 분야'에서 약 270개, 데이터·인프라, 프로그래밍 등 '기술·개발 분야'에서 약 100개의 솔루션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초기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 도전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쌀 품종 판별 기술 고도화·협력 확대 모색

국립식량과학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2일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품질 쌀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오는 22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벼 품종 판별 연구 협업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품종 판별

기술 고도화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양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기존 협약 기간을 연장하고, 공동 연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예정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농관원은 지난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공동 워크숍과 연구 정보 교류를 이어오며 현장 적용 가능한 품종 판별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신품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전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품종 식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신품종 종자와 유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품종 판별 지침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식량과학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품질 쌀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열린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 에너지 거점 입주기업 모집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과 기관을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핵심 시설이다. 입주 기업에는 기술 컨설팅, 제품 상용화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 사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개소한 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전시 공간과 회의실, 세미나실 등 연구와 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상층부에는 기업 전용

입주 공간이 마련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등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분야 기업과 기관이다. 서류 심사와 입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센터가 지리한 새만금 산단 일대는 수상태양광 평가시설과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주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농관원은 '2026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비 단계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 기초 교육과 1대1 맞춤형 상담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을 사전에 진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태국 등 주요 시장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현지 상담회를 열고,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가공식품 박람회인 독일 BIOFACH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통역과 홍보물 제작,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도 계약 체결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친환경인증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기업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친환경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내 연금 골든체인지 이벤트

전북은행, 연금계좌 바꾸면 최대 1만5000원 캐시백

전북은행이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고객에게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IF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내 연금 골든체인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고객이 전북은행 계좌로 변경할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모바일 앱 '쏙뱅크'를 통해 연금 수령 계좌를 전북은행으로 바꾸고 실제 연금이 입금된 개인 고객이다. 절차는 앱에 로그인한 뒤 '연금수령계좌 변경 서비스'에서 기존 수령 연금을 선택하고 계좌를 지정하면 된다.

혜택은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첫 입금 시 3천원, 이후 3회 연



속 입금이 이뤄지면 추가 7천원이 지급돼 최대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첫 입금 2천원과 추가 3천원으로 최대 5천원이 제공된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조건을 충족한 다음 달 지급된다. 전북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금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행정안전부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조사 시작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행정안전부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실태조사'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점용 등 위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밀 조사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공사는 불법 점용이 의심되는 지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드론 촬영과 지적정보를 연계해 점용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현장 측량과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조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은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의 함께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모델이 전국 확산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